고 강원용 목사와 나

(평생교육의 선구자, 여성인재 키워내다)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나는 난중에 태어나서 태평양 전쟁 등의 전쟁 시기를 살아온 세대로서 강목사님을 알게 된 것도 6.25사변 중 부산피난 시절 대학 YWCA 회원으로서 기독학생운동에 가담하면서였다. 그때 당시 해마다 개최된 YM-YWCA대학생 하령회라고 하는 기독학생들의 여름대회에 목사님은 초빙강사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대학졸업 후 YWCA의 실무자가 되어 대학생부 간사, 연합회 총무직을 거치면서 다양한 기독교 관련기관의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고 1959년도 목사님이 지금의 크리스천아카데미의 전신인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회를 출범시키면서 나에게 감사직을 맡게 한 것이 계기가 되어 목사님이 추진한 많은 일들을 50년에 가까운 세월동안 옆에서 지켜보는 행운을 얻게 되었다.

목사님은 우리나라의 격동기를 사신 걸어 다니는 현대사로서 역사를 꿰뚫어보며 열린 생각과 뛰어난 통찰력으로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 전환의 굽이마다에서 동시대보다 앞서가는 쟁점을 제시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비전으로 대책을 강구하며 이 나라의 민주사회의 기틀마련에 힘쓰셨는가 하면 1974년부터 시작된 중간집단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 각 부문의 많은 인재들을 배출해냈다.

목사님이 평생 심혈을 기울인 과업은 민주화와 인간화 그리고 양극화 해소를 대화를 통해 풀어보려는 노력이었다. 종교, 여성, 노동, 환경, 시민사회, 문화, 예술, 교육, 행정, 정치, 사법 등의 대화모임은 사회 각 분야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는 시발점이었다. 주제별 대화모임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만이 아니라 각계각층이 함께 함으로써 각 부문의 인재들이 부문 간의 벽을 허물고 통합적인 사고를 하게 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 것도 특이한 점이었다. 목사님의 대화모임의 또 하나의 장점은 참가자들이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기회를 갖게 함으로써 최근 정보지식사회가 필요로 하는 평생학습의 교육효과를 일찍부터 실행한 것이다.

목사님이 누구보다도 일찍이 여성문제에 관심을 가졌었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오늘 우리 사회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는 가정주부를 비롯해서 시민운동가, 학계전문가, 고위행정요원, 정치인, 장, 차관, 국무총리에 이르기까지 오늘의 여성발전을 이끌어온 성인지적인 여성들이 크리스천아카데미 대화모임의 평생교육과 중간집단교육과정을 거친 사람들이다.

21세기는 여성의 세기라고 한다. 그리고 여성에게 다양한 기회가 열려있다. 여성에게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준비된 인재가 없었다면 오늘과 같은 여성의 사회참여는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70年代의 목사님의 여성에 대한 특별한 배려는 한국여성운동의 주춧돌이며 원동력이었다고 인정한다. 한발 앞선 생각을 하는 지도자의 위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여성계 발전에서 가늠해볼 수 있다.

나는 만주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에 해방을 맞아 태어난 고장인 평양으로 귀향하고 2년이 채 못 되어 남한으로 내려와 고등학교를 마쳤고 대학생활은 부산 천막교실에서 공부하며 전쟁고아 돕기, 농촌계몽활동 등에 시간을 뺏기는 등 제대로 된 교육과정을 거치지 못한 채 사회인이 되었다. 목사님이 개최한 대화모임들 중 특별히 종교, 여성, 환경, 시민사회,

말년에는 평화문제에 이르기까지 내가 관여하고 있는 일과 관련 있는 분야의 모임에 예외 없이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준 것은 돌이켜보면 나에게는 학창시절에 놓친 학습의 결함을 만회하는 평생교육의 기회였다. 이렇듯 나는 목사님 앞에서는 만년 학생이었다. 70대의 중턱에 있는 여성계 원로라고 해서 원로모임에 자리를 같이하고 있는 나를 목사님은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환경관련정책을 따지는 어떤 원로모임을 끝내고 귀갓길에 오르면서 닫았던 승용차 문을 열고 배웅하고 있는 나에게 "박영숙, 이제 원로로 인정할게"라고 한 것은 겨우 일 년 전의 일이다.

이러한 경험은 나만의 것이 아닐 것이다. 젊었을 때 인연을 맺은 모든 이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목사님은 성직자이면서 여성주의자 그리고 평화주의자이면서 평생교육의 선각자로서 우리 사회의 깨어있는 열린 원로스승이었다. 원로의 지혜를 어느 때보다 더 필요로 하는 오늘 필요하면 달려갈 수 있었던 품이 없어진 것을 아쉬워한다.